

본회는 1986년 중점사업인 양계산물 소비촉진 사업의 일환으로 160만원 현상 공모 닭고기·계란 우수성 홍보 표어를 1986. 10. 1부터 10. 30 까지 모집한 바 전국에서 1,482 건이 접수 되었다.

이번 현상모집은 일간신문(어린이용), 주간신문, 전국 시·도청 공무원, 축산관련학교(대학, 고교), 유관업계에 광고 또는 공

1,480여개의 응모된 표어내용을 몇 가지 관심도에 맞춰 분석하여 보았다.

식생활 관심도 점차 변해

1962년 이래 5차에 걸친 경제 개발 5개년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에 힘입어 문명의 진보와 풍요로워진 생활로 인해 이제 <먹는다는 것>이 생존영위의 수단이 나 끼니를 때운다는 식의 단순한

표어에 나타난 소비자들의 양계산물에 대한 의식구조

김 미 옥

(본회 홍보담당)

문을 통하여 응모작을 모집한 바 응모자층은 다양성을 나타내어 국민학교 학생으로부터 대학생에 이르는 학생, 주부, 교육자, 양계업자, 조리사, 회사원, 매스컴 관계자, 관련업계인, 전국의 공무원 등 매우 폭넓은 대상이었다.

응모자의 거주지역도 전국 각 도에 걸쳐 있었는데 서울은 물론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및 멀리 제주도에서도 많은 응모를 하였다.

본지는 소비자들의 양계산물에 대한 인식도를 알아보기 위해

포만감으로 만족하는 시대는 지났다.

국민소득 수준이 향상되고 식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의 식생활은 크게 개선되어 가고 있다.

국민 1인당 하루 총단백질의 평균 섭취량은 과거 10여년간 60~70그램의 수준을 유지하여 한국인의 평균 단백질 권장량 70 그램에 크게 부족되지 않았으나, 우리가 섭취하는 단백질의 50퍼센트 정도는 곡류 특히 쌀로부터 얻고 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최근 곡류

의 섭취량이 점차 적어짐에 따라 서 곡류로부터 얻는 단백질의 양도 감소하여 1969년에는 66.8퍼센트이던 곡류단백질 섭취 비율이 1981년에는 44.5퍼센트로 감소하였으나 일본의 25퍼센트 미만과 비교하면 아직도 우리는 곡류로부터 많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하고 있다.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량은 매

한 일본의 동물성 단백질 섭취량이 40그램이 넘으며 총단백질 섭취량에 대한 비율이 50퍼센트가 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의 동물성 단백질 섭취량은 아직 낮은 수준이다. 축산물 등의 동물성식품 위주로 소비패턴이 점차 바뀌고 있는 추세에 닭고기와 계란은 소비자들에게 어떤 인식으로 느껴지고 있나를 알아보기로 한다.



년 계속하여 증가되어 1969년에는 6.8그램, 즉 전체 10.4퍼센트에 불과하던 것이 1974년에는 12.3그램 전체 단백질 섭취량의 18.1퍼센트)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1981년에는 22.5그램으로 약 33.3배 증가하였고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비율은 32.2퍼센트로 현저히 증가하게끔 되었다.

그러나 우리와 식관습이 비슷

1. 건강과 양계산물

응모표어 중 37%의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관심도가 건강이다.

양계산물을 섭취하면 건강해진다는 내용으로 “닭고기로 이룬 건강 100년장수 초석된다” “매 일같이 먹는 달걀 나날이 좋아지는 나의 건강”등의 표어들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은

누구나 건강하게 오래살기를 원하고 있는 바 완전식품인 계란과 저열량 고단백질식품인 닭고기를 섭취함으로써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다.

2. 영양가치

건강 다음으로 많은 비율(16%)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양계산물의 영양적 가치이다. 포만감만을 채우기 위한 식품이 아닌 영양적으로도 우수한 식품섭취를 원하고 있다.

올바른 식생활은 뭐니해도 영양적 균형에 있다고 볼 때 식물성 위주의 식품에서 이제는 동물성 식품을 섭취함으로써 영양의 균형을 이루자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아폴로 계획에 의해 우주선을 쏘아 올렸을 때 미국에서 소위 ‘완전식품’을 개발한 적이 있다. 5대 영양소를 골고루 갖춘 튜브식의 식품이 개발됐는데 치약처럼 쪽쪽 짜먹을 수 있어 간편하고 단순해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을 것 같았으나 결국 대량생산은 포기하고 말았다.

영양공급은 될지언정 배설이 안되는데다가 특히 먹는 즐거움이 없어져버린 데 따른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된 것이다. 만일 우수한 영양과 먹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식품이라면 금상첨화일 텐데 계란과 닭고기는 바로 이점에서 더없이 좋은 식품이 아닐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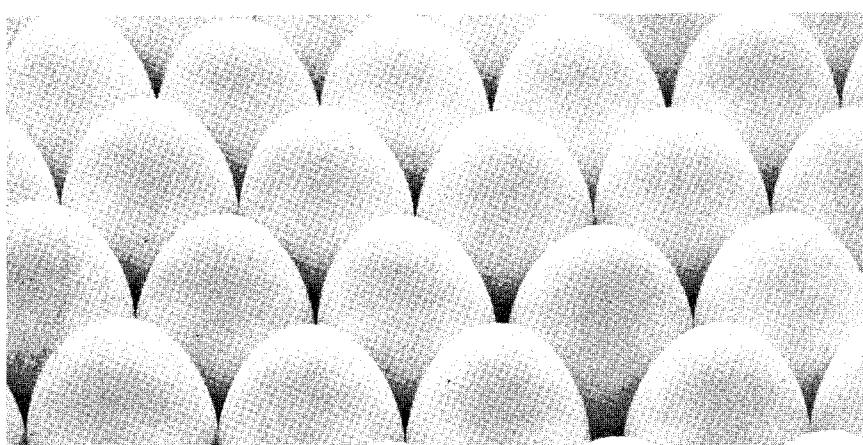
하나의 생명이 태어나는데 필요한 영양소를 고루 갖춘 계란과 질좋은 동물성단백질로 균육속에 지방이 섞여있지 않아 담백하며

비타민B군이 품에 들어 있는 닭고기는 우수한 영양식품으로 손색이 없다.

응모된 표어 가운데 이런 점을 강조한 내용으로 “영양제가 따로 없다 계란으로 보충하자” “우리 조상 즐겨먹던 닭고기는 영양최고” 등이 있다.

3. 올림픽(스포츠)

’86아시안게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우리 국민들은 ’88올림픽에서도 좋은 성과를 바라고 있



으며 그 열망을 양계산물로 풀어 보려는 듯 표어 내용 중 6%를 올림픽(스포츠)과 연결시켰다.

몇 가지 예를 든다면 “계란·닭으로 다진체력 88년에 우승하세” “88올림픽을 닭고기 계란과 함께 승리로 이끌자” “닭고기로 얻은 체력 ’88금메달은 우리의 것” “체력으로 이긴 ’86 닭고기로 ’88 대비” 등이 있다.

’86아시안게임을 치루면서 예전보다 훨씬 스포츠(올림픽)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졌으며 앞으로 ’88을 대비하는 자세에 임해 올림픽 획득에는 양계산물 섭취가 최고라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당선작에는 오르지 못했다.

응모표어의 6퍼센트를 차지하고도 21점의 당선작 중에 한 점도 없었던 것은 아마도 시대의 조류를 민감하게 탄 유행성의 이미지를 느끼게하여 사시사철 변함없이 섭취해야 할 식품이라는 관념에서 벗어난 탓에 심사위원들의 관심을 깊게 끌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4. 식생활개선

닭고기와 계란으로 식생활을 개선하자는 내용이 5%를 나타내고 있다.

현대는 사회생활양상의 다양화에 따른 식생활 개선이 기대되고 있다. 식생활은 제각기 지역이나 나라에 따라 각기 그 특색이 있으며 오랜기간 동안 쌓여온 생활의 관습이기 때문에 단번에 바꾸기는 힘이든다. 예전부터 먹어오던 음식의 형태나 조리법을 점차로 옮바르게 개선시키는 것이 지혜롭다.

식생활 개선이라고 하면 우선 식품생산 즉 유통과 조리, 가공의 측면과 그것을 먹는 섭취행위의 측면 등 크게 두가지로 집약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개선이란 바람직한 전통을 계승하면서 나쁜 점을 고쳐 나가는 일이라고 판단할 때 우리 국민들의 식생활은 곡류나 채소 등의 식물성식품 위주로 되어있기에 동물성식품을 섭취해 영양의 균형을 맞춤은 물론이고 계란과 닭고기를 이용해 간편한 조리법으로 합리적으로 전체 국민의 건강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여망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다.

동물성식품 중에서도 공급이 량, 경제성 등을 뽑을 수 있다. 부족해 해외식량 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현실을 감안, 식량자원, 활용의 만족도를 높이면서 영양 상태의 불균형을 조화있게 제고 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양계산물을 지적하고 있는 표어들이다. “닭고기의 좋은맛은 전인류가 애용한다”는 표어가 있는가하면 “사랑하는 자녀에게 맛있는 닭고기”란 표어도 있었다.

사랑과 경제성을 나타내는 표어로는 “열화같은 장모님정 닭고기로 사랑주네 혼자받긴 너무커 생활개선” “닭고기 계란으로 식서 두고두고 느껴지네” “저렴한 닭고기로 가정경제 성장한다” 등 이 있는 반면 두 세가지 내용이 함께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표어도 상당히 많았다.

“싼값으로 영양보충 닭고기로 몸도 튼튼 우리엄마 웃음속에 맛도 만점 영양도 만점”이란 긴 내용의 표어에는 닭고기가 값도 싸고 영양도 많아 몸도 튼튼해지며 맛도 좋다고 나와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표어 응모자(대다수 소비자들) 인

식중에는 양계산물이 건강과 가장 밀접하며 그를 뒷받침 해주는 것으로 영양적 우수성을 들고 있다.

올림픽에 관해서도 예전에 비해 엄청나게 많은 의식을 하고 있음이 양계산물표어에 비추어 나타났고 식생활을 개선해야 한다는 생각도 계란과 닭고기를 통해 나타났다.

이번 표어현상 공모를 통하여 영양이 우수한 닭고기·계란의 우수성을 일반소비자들이 심사숙고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소비촉진 홍보사업에 기여한 바 크다 하겠다.

본회는 소비자들의 의식구조에서 나타난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홍보사업의 방향을 잡아 나갈 예정이다. ♣

5. 기 타

표어가 담고있는 많은 내용 중 건강·영양·올림픽·식생활개선을 제외하고는 2~3퍼센트를 나타내고 있는 내용들로 맛, 사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중추·대추

만을 전문으로 육성하고 있는 저희 농원에서는 끊임없는 연구, 노력으로 귀하의 수익증대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육성계전문사육장

삼 정 농 원

중추, 대추 (위탁사육 및 주문사육환영)

농 장 : 경기도 광주군 오포면 양벌리 612번지
전 화 : 62- 4339 (DDD 0347)

※ 간이연락처 : 퓨리나사료 광주서비스업소 (2-2558)